

2021년 2월 19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축산경영과 과 장 박홍식(044-201-2331), 사무관 이상훈(2338) / 제공일: 2월 19일(총 4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## 계란 수입은 공급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[농민신문 2.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

### 언론 보도내용

- 외국산 달걀 수입으로 산란계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유통업체의 배만 불림
  - 수입산 가격이 국산과 큰 차이 없는 6,980~7,500원에 팔려 유통업체들이 한판당 3,000원의 과도한 이윤 수취, 소비자 외면
  - 정부가 수입계란 판매가격을 파악하지 않고, 유통관리에 소홀한 것은 문제 등



###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- 2월 19일자 농민신문 1면 '유통업체 배만 불린 달걀 무관세 수입', 8면 '유통경로 · 판매가격 파악조치 안돼...정부 사후관리 소홀', 15면 사설 '농민 울리고 소비자에 외면당한 달걀 수입'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.

- ① 1면, 외국산 달걀 수입으로 산란계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졌다는 점에 대하여
- 2월 17일 기준 계란 산지가격은 5,844원/특란30개로 최근 5년간 평년 동월(2,907원/특란30개) 대비 101.0%, 전년 동월(3,015원/특란30개) 대비 93.8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
- 산지가격이 15면 사설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강세인 상황이므로 계란 수입으로 인해 산란계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- ② 15면 사설, 달걀값 상승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에서 3km로 과도하게 넓힌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대하여
-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과거 사례, 지역의 오염 정도, 발생 양상, 농장의 방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의 선별적 살처분으로 인한 사회·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km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.
- 2월 17일 기준, AI 발생 98건 중 산란계 농장이 41.8%(41건)이고,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는 1,548만마리이며, 이중 산란계 발생 농장의 살처분 696만마리(45.0%), 다른 산란계 농장 발생에 따라 인근 산란계 농장 살처분 598만마리(38.6%), 타 축종 발생으로 산란계 농장 살처분이 254만마리(16.4%)로 나타났습니다.
-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, 농장소독 미흡, 농장내 발판 소독조에 소독약 채우기 소홀, 생석회 미 도포, 장화 갈아신기 미 실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.

- 따라서, 계란 가격상승이 단순히 과도한 살처분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, 산란계 농장의 방역 노력 미흡 등의 다른 요인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
- ③ 15면 사설, 달걀 하루 생산량이 900만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에 대하여
  - 2월 17일 기준, 계란은 일일 3,700만개가 공급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, AI로 인해 평년(약 4,300만개/일) 대비 약 600만개 (14.0%↓)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
  - 반면, 코로나19로 늘어난 가정용 계란 수요와 제과·제빵 수요를 줄어든 단체급식·외식 수요감소분이 보충되고, 국내산 신선란을 사용하던 식품가공회사들이 수입 계란가공품 등으로 사용 대체하고 있어 가정용으로 추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
- ④ 15면 사설, 수입산 가격과 국산 가격이 큰 차이 없는 6,980~7,500원에 팔리고 있다. 유통업체들이 한판당 3,000원 이윤을 남기고 있다. 상황이 이러하니 소비자도 외면한다는 점에 대하여
  -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를 통해 수입 계란을 직배하면서 구매자가 유통마진을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수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
  - 이에, aT로부터 직접 수입계란을 구매한 코스트코는 4,990원/30개로 싸게 판매하였으나, aT로부터 구매한 1차 구매자가 2차 중간도매상에게 넘겨 유통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

- 최종 수입계란을 인수한 판매점의 판매가격 책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곤란하며, 판매점이 6,99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그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는 의미로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- ⑤ 1면 정승헌교수, 정부가 수입달걀 유통관리에 소홀한 것은 큰 문제, 8면, 소매업체들이 수입달걀을 어느 가격에 판매하는지 파악하지 않은 상황, 8면 김정주 명예교수, 정부가 수입달걀 판매하는 유통업체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
- 정부가 수입계란을 싸게 팔도록 유통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,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, 산란일자 등 표시사항과 위생적인 선별·포장 등 유통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유통관리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.
- 수입계란의 최종 판매자는 매장에서 팔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판매하고 있으며,
- 정부의 수입 목적은 수입 계란을 단순히 싸게 판매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 공급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가정용 판매점, 외식업체나 반찬가게 등 중소상공인, 가공업체 등이 국민 필수식품인 계란 판매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.